# 불교천자문 출간

## 반야심경등 경전 8종서 한자추려

### 寫經 교본도…쓰기·단어이해 등 도움

〈불교천자문〉이 나왔다.

한문과 불교용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불교천자문〉은 자전편과 쓰기편 2권.

울산정토사 덕진스님이 펴낸 이 천자문은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아미타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화엄경보현품'에 나오는 한자를 추려 1천90자로 구성됐다. 이들 여덟가지 경전을 이루는 한자는 총 1만9천8백자에 이른다. 그러나 중복되는 글자를 빼고 각각의 낱글자를 골라낸 것이 1천90자라는 것.

덕진스님

덕진스님은 이 1천90자를 '자전편'에서 낱자의 음과 훈을 각종 자전을 참고해 상세히 해설하고 각 글자들로 이뤄진 불교용어들로 2백단어 이상으로 묶어 설명했다. 따라서 자전편의 한자와 단어만 익히면 '예불문'등 여덟종의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또 쓰기편은 1천90자를 정자와 필기체로 나눴으며 펜글씨 교본의 형식으로 편집돼 쓰기공부에 도움을 준다. 낱글자들로 이뤄진 불교용어들로 배열되어 있어 글씨공부를 하며 용어의 뜻을 새길 수 있다. 글씨 교법은 박한숙씨의 필체다. 쓰기교본 하단은 용어의 해설이 실렸다.

〈불교천자문〉은 여덟종류의 경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교재 역할과 사경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중교생 뿐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수교본이 될 것이란 게 덕진스님의 설명.

〈불교천자문〉의 출판기념회 및 사경법회가 오는 29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태〉

# 고승열전시리즈 10권 나왔다

## 윤청광씨 근현대 고승 궤적·가르침 소설로 정리

## 구산·탄허스님등 일대기 다룬 작품도 나올예정

근현대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일대기를 소설로 정리한 '고승열전 시리즈'(언어문화사) 1차분 10권이 완간됐다. 전쟁과 경제적 궁핍, 좌·우사상대립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사상적 힘이 되어주었던 큰스님들의 남달랐던 삶의 체적과 사상들이 윤청광씨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이 시리즈는 불교방송에 '고승열전'으로 방송돼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지은이 윤청광씨는 "큰스님들의 자취를 찾아 전국의 사찰을 수없이 돌면서 큰스님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업을 해나갔다"며 어렵사리 당시 큰스님을 모셨던 스님들을 찾아가면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으려는 바람에 낙심하며 돌아섰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이 나오면서는 각 사찰에서 보시용으로 다량구입하는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청담스님과 고암스님의 경우 불서로서는 드물게 초판 1만부를 제작하기도 했다.

용성스님 만공스님 만암스님 효봉스님 동산스님

경봉스님 금오스님 전강스님 고암스님 청담스님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읽으면서 큰스님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승열전을 통해 알게 하려는 저자의 독특한 동화풍의 문체 덕분이다. 게다가 관사와 엿장수를 하다가 승려가 된 효봉스님, 서슬이 시퍼런 때 대통령을 꾸짖던 동산스님, 종정을 지낸 뒤 다시 총무원장을 맡았던 청담스님 등 큰인물들의 행적이 독자들에게 감명을 준다.

92년 11월 첫선을 보인 고승열전시리즈는 만암스님 금오스님 만공스님 전강스님 고암스님 경봉스님 용성스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언어문화사는 계속해서 이 시리즈 2차분으로 구산스님 탄허스님 경허스님 한암스님 운허스님등의 일대기를 펴낼 계획이다.

고승열전 시리즈는 이기주의와 물욕에 찌든 현대인들을 맑은마음 찾기로 안내하고 있음은 물론 스님들의 행적을 통해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정성운 기자〉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역자 | 출판사 |
|---|---|---|---|
| 1 | 금강경 강의 | 무 비 | 불광출판부 |
| 2 | 알기쉬운 불교 | 편 성 부 | 불교방송 |
| 3 | 시작하는 마음 | 일 타 | 효 림 |
| 4 | 영원한 자유의 길 | 성 철 | 장 경 각 |
| 5 | 무소유 | 법 정 | 범 우 사 |
| 6 | 술몽쇄언 | 김 대 현 | 을유문화사 |
| 7 | 부처님 말씀 | 성 열 | 법 등 |
| 8 | 한산과 습득 | 고 은 | 진 음 |
| 9 |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권 영 한 | 전원문화사 |
| 10 | 불교상식 백과 | 홍사성 외 | 불교시대사 |

구입문의:(02)737-0695

## '스님, 꽃필 날이…' 재출간준비 또 물의

지난해 11월 출판 – 폐기 – 사과광고 – 반박광고로 이어지며 물의를 빚었던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를 저자인 강헌정씨가 재출판을 준비하고 있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스님, 꽃필 날이…〉는 저자 자신을 성철스님이 사랑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 물의를 빚자 당시 이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폐기처분했다.

강씨는 〈불교세계〉 4월호 인터뷰에서 "결코 속된 감정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며 2권까지 집필, 곧 출판할 뜻을 밝혔다. 이미 몇몇 불서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출판계에서는 관심거리가 되는 내용이고 필자난에 시달리는 군소출판사에서 출판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본원경(동봉 옮김)=불교의 윤리와 자비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경전의 주된 사상은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옥의 갖가지 고통과 중생구제의 끝없는 서원을 설한 경전이다.

〈관음출판사, 6천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원의범 지음)=전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가 때에 따라 떠오른 짧막한 생각 1천7백가지를 묶었다.

'산 놈은 남을 먹어야 산다/ 사는 게 슬픈 까닭' '염화시중에 가섭은/ 꽃보고 웃지 않았다/ 빈 손 들어도 웃었다' 등 이 책의 단상들은 생각과 말의 미로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삶을 바로보는 지혜를 전해준다. 〈시공사, 6천원〉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김문길 지음)=일본의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예술의 원조가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우리나라 도공 등 예술가에 의해 이뤄졌으며, 일본의 국보가운데 다수가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불화 석탑 범종 등의 문화재라는 점을 현지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임진왜란은 영토침략 전쟁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선진문화를 약탈하려는 문화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빼앗긴 우리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하고 있다.

〈혜안, 6천5백원〉

▲도선국사 풍수문답(정관도 해설)=우리나라 풍수의 비조 도선스님이 우리나라 산수와 지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저술한 〈도선국사 풍수문답〉의 해설서. 무감편(無憾篇)과 십조룡맥(十條通脈) 옥룡자 유산록(玉龍子遊山錄) 산수도(山水圖, 龍六圖)를 한권으로 묶었으며, 무감편은 원전필사본을 영인판으로 실었다.

〈지선당, 3만원〉

## 화제의 책

### 마을로 간 미륵

주강현 지음

미륵신앙이 불교사 내지는 우리민족의 변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늘 이야기되어 왔으나, 미륵신앙 전반을 폭넓게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은 없었다. 〈마을로 간 미륵〉(전3권 중 2권 펴냄)은 미륵과 관련된 사찰장승과 당간지주, 민간신앙 자료에 대해 폭넓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나아가 인문지리적 접근과 생동감있는 사진자료, 지도를 곁들여 기층불교문화와 민속신앙에 대한 답사서로서도 읽힌다.

### 민중의 삶과 함께한 미륵답사기

그동안 학계 연구는 미륵의 하치매몰불(下體埋沒佛)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미륵이 땅에 서 솟구쳐올라 출현하는 것만을 주목해왔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륵을 답사한 결과 미륵이 물에서도 올라오고 있음을 저자는 여러가지 실증을 들어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에서는 미륵이 민중들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대원사, 1권 7천원, 2권 7천8백원〉

## 명사추천 불서 100선

### 원효선사 '십문화쟁론'

원효연구가들은 한결같이 원효사상이 신라인의 사상통일과 통일위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서 그의 사상체계를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화쟁사상(和諍思想)을 들고 있다.

'화쟁'이란 쟁론(諍論)을 화합(和合)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여러 학설들중에 어느 하나를 고집한다거나 또는 버리거나 함이 없이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서로 다른 학설 사이의 모순·대립을 해소시켜 하나로 귀결시키는 통합(統合)의 논리를 지칭한다. 〈십문화쟁론〉은 이러한 화쟁의 논리를 불교사상적 관점에 적용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변을 10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한 것에 다름아니다. 전체 2권 중에 상권의 일부만이 원문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의 다른 저술들을 함께 참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강 광 식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선사는 〈열반경 종요〉에서 "뭇 경전의 부분적인 면을 통합하여 온갖 물줄기를 한 맛의 진리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불교의 지극히 공변된 뜻을 열어 보는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회(和會)시킨다"고 설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저술 〈금강삼매경론〉에서도 "큰 바다에는 일체의 뭇 강물줄기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불교교리상의 여러 쟁론들, 즉 대승(大乘)과 소승(小乘), 성(性)과 상(相)등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제반교의를 다 융화하여 일불승(一佛乘)에로 귀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회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또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로 얼버무려 획일화하는 것도 아닌 동시에 본질적 의미를 살려 여러 가치의 통섭(通涉)을 꾀하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철리(哲理)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십문화쟁론〉의 중심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화쟁정신의 핵심이 무조건적인 관용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자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고 공구하는 비판정신이 결여된 관용은 각자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호도하는 야합(野合)을 가져 올 뿐, 그것이 진정한 합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선사는 거문고 줄(絃)에 비유하여,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여 긴장됨이 없으면 제소리가 나지 않으며, 모든 줄이 각기 제소리를 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훌륭한 화음(和音)을 가져오게 됨을 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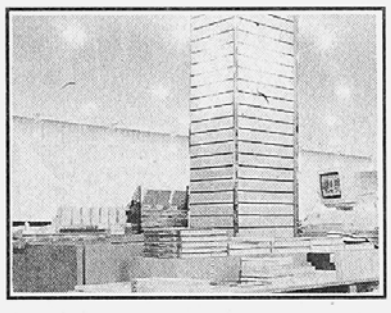
## '화합의 길' 대승차원서 제시

## 무한경쟁 사회의 구세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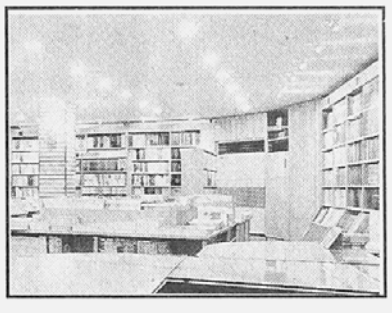
요컨대 화생사상의 정신적 요체는, 철저한 비판정신에 바탕을 둔 자기성찰과 개성의 특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적 관용정신과의 묘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화쟁의 정신은 다원적 이해관계 속에 무한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매우 소중한 구세의 철학으로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지방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시대철학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란 한국화에 철저를 기하되 한국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승적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일찍이 화쟁사상은 일깨워준 바 있기 때문이다.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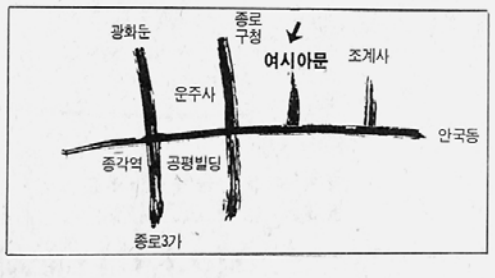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32, 59,84,159,331,588-2번